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2005년도 축산소득 농업분야 중 최고 기록 계란생산비 개당 90.8원, 육계생산비 kg당 1,008원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농가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중 축산소득이 가장 높고, 특히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서는 축산농가의 가구당 소득이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44,611천원으로 영농형태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농가의 가구당 평균소득인 22,648천원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축산농가 다음으로 특용작물 화훼농가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농가의 농가경제잉여금은 14,622천원으로 논비농가 1,401천원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축산농가의 전업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경제잉여지금은 농가경제에 있어 최종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시설 재투자 및 규모화가 가능해지므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소득이 농업분야중 최고를 기록한 이유로는 축산업이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빠르게 대처하였고, 특히 2005년도 축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양계산물 가격을 보면 계란의 경우 대란기준 개당 120원(협회발표가격)으로 수당 326원의 순이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계의 경우 대닭 kg당 1,425원을 기록하면서 수당 287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를 보면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계란을 비롯해 송아지, 비육우는 증가세를, 육계를 비롯 우유, 비육돈은 200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란 생산비는 개당 90.8원으로 2004년 84.7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육계의 경우 kg당 1,008원으로

2004년 1085원 보다 7.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시료비와 병아리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의한 결과이며, 앞서 향

표 2005년 생산비, 수익성 분석

구 분	산란계	육 계
생산비(원)	90.8/개(계란)	1,008/kg
순수익(원)	326/수	287/수

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DDA/한미 FTA 등 국내외적인 변수가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계장 HACCP 2008년부터 자율시행 양계산물 안전성을 위한 준비사항

세계 각국의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연일 주요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웰빙시대를 맞이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날로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0년대 말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확대되자 쇠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는가 하면,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계란에서의 니트로푸란 검출, 동남아 및 유럽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근래들어 소비자 단체 등에서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품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식품위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장 외에 도계장 42곳, 난가공업체 2곳이 HACCP를 적용받고 있으며, 상당수 사료공장도 HACCP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8만수 이상의 도계장에서는 포장유통을 의무화해야 하고, 8만수 이하의 도계장은 2008년부터 의무화가 된다. 이처럼 생산을 제외한 다방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양계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농장 적용은 국가시장 개념이 붕괴된 세계화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 준다.

양계농장의 HACCP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오는 2008년부터 산란계와 육계를 대상으로 HACCP 지침(7원칙 12절차)에 따라 자율적용을 실시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참여농장에 대해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막상 HACC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살모넬라 등이 없는 청정한 농장을 만드는 작업과 질병과 잔류물질 예방 등 일반 위생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 닭, 종업원 등 외부조건에 대한 위생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농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농장 사양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간을 빼앗겨 자칫 HACCP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서작성에 소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농장주의 강한 의지와 종업원들의 미인드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HACCP의 원칙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며, 이해를 돕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

어져야 2008년부터 자율시행될 HACCP가 농장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육계 생산성 저하 현상 뚜렷

종계·육계인 협의체 구성 등 대화로 풀어야...

최근 농장을 다니다 보면 육계농장은 물론 종계장에 이르기까지 육계 CC의 생산성 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육계의 균일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지난달 개최된 질병세미나에서도 육계인들과 종계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의 의견이 분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병이리 품질문제로 귀착이 되었으나 이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백신문제, 사료문제, 사양관리 문제 등등...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가 육용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건이다. 원칙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은 종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계에 대한 추백리(SE)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금티푸스(SG) 백신을 사용할 경우 자칫 살모넬라에 대한 양성판정에 따른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질병이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회에서 매월 개최되는 종계 및 육계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 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육계농장에서는 종계의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으로 병이리에 난계대 되어 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10일 이내에 병이리가 폐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생제가 섞인 초사료를 급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몇몇 농가에서는 무항생제 사료를 급이하여 1주일 내에 폐사가 발생하면 가검물을 가까운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종계인들도 신란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종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가금티푸스는 종계장에서 육계농장으로의 전이가 희박하기 때문에 병이리 타을 하기 전에 사육환경 등 다른 요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검역원 관계자에 의하면 가금티푸스 백신은 신란중에 직접 투여할 경우 난계대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와 보다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푸스 백신 사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추백리가 농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종계에도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백신 사용에 따른 닭고기 수출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계인들과 육계인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의 장을 갖고 병이리 설명제 등 당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 모든 매듭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계**